

감사주일이다. 이 절기는 한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“초실절”이라고 한다(출34:22) 이 때는 한 해의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감사의 예물도 드리라고 했다(신16:10). 이 절기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숫자 50이란 뜻이 담긴 “오순절”이라고도 한다. 행2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. **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본문에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.**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심하게 말하면 이 성령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.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분을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다(고전3:16).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(고전12:3),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다(갈4:6) 이제 남은 것은 이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,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, 성령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는 것이다. 그 축복을 성령 세례, 성령 충만의 축복이라고 하고, 그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영성이라고 한다. 24시로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(눅11:13)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야 한다.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.

1. **고전2:10에 이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.**
 “하나님의 깊은 것”이 뭘까?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을 말하는 것이다(고전2:12)
 - 1) **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축복이다. 흔히 인격과 성품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(갈5:22-23)**
 - ① **자가 나의 내면 속에서 누리려야 하는 축복이다.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한다.**
 “사랑, 희락, 화평, 오래참음, 자비, 양선, 충성, 온유, 절제”의 열매이다. 내 안에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내 스스로 지옥이다.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하고, 기쁨보다는 우울하고 슬프고, 화평보다는 늘 분노가 가득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? 작은 자극에도 참지를 못하고,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니 판단과 비난만 앞서고, 선함이 없 이 나누는 기쁨이 없다. 충성, 신뢰감이 없고, 온유함 보다는 폭력이 먼저 앞서고,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.
 - ② **성령의 축복을 못 누리면 수 십년을 믿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.**
 만일에 그것이 계속 된다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(그 속에 자녀들, 교우들, 불신자들)은 무엇을 느끼겠는가?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.
 - 2) **우리의 기능과 전문성에 나타나는 축복이다. 흔히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(고전11:4-11, 롬12:4-8)**
 배워서 가진 기능과 전문성도 있다.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른 것이다. 배운 것이 없는데,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. 지혜와 지식의 은사, 가르치는 은사, 병 고치는 은사, 섬기고 대 접하는 은사, 예언과 방언(전도를 위한 외국어)의 은사 등이 그런 것이다.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, 세상을 살리고,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된다.
 - 3) **우리의 만남과 하는 일에 나타나는 축복이다. 흔히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(왕하2:9, 롬15:18)**
 나를 만나고, 나를 통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. 도둑, 강도, 살인자도 변화된다. 성령의 역사다.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,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면서,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.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. 나는 작은 일, 당연한 일을 했는데, 성령이 역사하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.
2. **마12:28에 이 성령의 축복을 누릴 때에 흑암이 무너진다고 했다.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축복이다.**
 - 1) **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사단에게 속는다.**
 - ① **분명히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.**
 다만 속일 수는 있다(엡6:11).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, 상처, 숨은 문제를 너무 잘 안다.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고, 낙심하고, 시험드는지 너무 잘 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. 왜 24시 성령의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려야 하는가? 사단도 24시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이다.
 - ② **구약에는 광야에서 낙심, 불평,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, 신약에는 물질 문제 때문에 실패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대표적 실패다.** 해방 받고, 가나안 정복의 언약 받아 놓고도 광야에서 불신자 비슷하게 갈등하다가 끝난 것이다. 생명을 다해 봉사하고 헌금 내놓고도 받을 축복을 마귀에게 속아 다 쏟아 놓은 것이다.
 - 2) **이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 잠시의 어려움과 시험 거리도 더 큰 축복이 된다.**
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축복을 앞에 두고 분명히 마귀가 속이는 일을 한다. 특히 새신자나 새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대신해주고, 잘 도와주어야 한다. 이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,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박살내야 한다. 사단이 건드린 만큼 증거가 온다.
3. **행1:8에 이 성령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.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다.**
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진 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다.
 - 1) **아프리카에 가서 한 메시지도 이것이다. 이번 선교의 주제는 “아프리카 시대를 여는 치유와 씨앗” 이었다.**
 - ① **아프리카 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대륙도 없다(강인한 몸, 따뜻한 성품, 음악성, 지혜, 기후, 천연 자원등)**
 복음이 없으니 축복을 가지고도 모르고 산다.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게 만든다(고후4:4). 강대국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기 전에, 사단이 아프리카를 흑암으로 덮기 전에 복음 가진 우리가 아프리카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.
 - ② **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 된다(요19:30).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.**
 (세가지 권세,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). 조금만 집중하며 기도하면 된다. 그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.
 - 2) **이번 주간에 시작되는 멕시코에 가서 전할 메시지도 이것이고, 붙잡아야 할 축복도 이것이다.**
 - ① **남미에 단 한번도 정확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것이다.** 스페인 군대가 개톨릭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정복만 했다. 마리아 사상이나 심어 놓았고, 그리스도 없는 해방 신학만 짝 차 있다.
 - ② **의료팀이 가서 육신 치료와 함께 해야 할 메시지도 이것이다.**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.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겨줌으로 멕시코가 본선 진출하고, 멕시코에 한국 열풍이 분 것도 시간표다.

결론-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문제를 끝냈다. 축복의 사람이고, 승리의 사람이고,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. 실제로 내 삶에서 이 증거를 누리고, 내 현장과 세계를 살릴 자로 서는 것만 남았다. 그 축복을 위해서 성령의 축복을 약속한 것이다. 조금만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보라. 나의 평생, 24시, 오직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누리기를 축복한다.